

문화특집

◇ 여성미술의 발생과정과 현위치

화폭에 담은 성차별·계급모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여성미술'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1987년 가을에 열렸던 제1회 '여성과 현실' 전 이후부터였다. 그 전에는 세 사람의 중년 여성 화가들이 모여서 '반에서 하나로'전을 열면서 여성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많은 숫자의 화가들이 모여서 여성문제를 그림으로 형상화해 보고자 한 것은 '여성과 현실' 전이 처음이었다.

'여성과 현실'전의 주제가 된 것은 그 전년도에 발족된 민족미술협회의내 여성분과원들이었다. 분과원의 여성화가들은 모임을 거듭하면서 도대체 여성들이 그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 공부도 하고 토론 과정도 전하기도 했다.

그 이전까지 그림을 그리는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들은 '여류'라는 접두어가 붙은채 통칭 '여류화가'라고 불리워졌고 그들이 그리는 그림 또한 절실한 여성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10월에 한 화랑에서 대다수가 소위 여류화가들로 불리워지는 화가들의 그림들을 모아 전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의 여류화가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 현대미술의 조류에 휩쓸린 '인류보편성'이나 '영원한 인간성'같은 애매모호한 의도를 뒀 배경에 깔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다움이라든가 여성특유의 아자기기함 같은 소위 여성성을 그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성과 현실'전을 위해 모였던 화가들은 이같은 그림들에 대해 우선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나에 토론의 핵심이 모아지지 여러가지의 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는 물론 우리가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줄 수 있는 여성의 특수성(섬세함이라든가 아자기기함 같은)이 그림에 나타나야 한다는

지만 그보다는 우선 여성화자들의 시선이 같은 여성으로서 노동 현장에서 분투하는 여성들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남자들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거의 절반수준밖에 받지 못하고 또 집에 가만 주부로서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그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사람들의 시각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결자지를 모두 쳐내고 크게 본다면 여성문제는 성모순과 계급모순이 겹쳐지면서 여러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성모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자들이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문제점들이다.

요즘은 신문에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에서도 반드시 언급되고 있는 것

어 할 여성들은 중산층 여성들'이라는 농담이던 농담을 기록권을 갖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중산층 여성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전시를 하면서 화가들은 전시에서의 전시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 부딪혔다. 전시장이란 곳이 본래 미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여유있고 한가한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시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진 했어도 정작 그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시 때도 그림의 내용이 따로 된 셈이었다.

물론 그림을 그 그림에 담긴 주인공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림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전시장을 찾은 관객이 화가의 의도를 알아챌려면, 즉 우리가 처한 현실에 눈을 뜬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이고, 그림은 이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관객들에게 그런 그림은 일종의 프로퍼갠더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사실 프로퍼갠더, 즉 선전화로 말하자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그렇게 거부감을 느낄 것만은 아니다. 자기의 신념을 내세우는

해체되고 보다 더 노동운동과 밀착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 민미협내에 노동미술위원회가 발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여성미술은 그 지평을 넓혀야 할 때가 되었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여성이라는 범주에는 여성노동자들 뿐 아니라 중산층 여성도 포함되며 그림은 여성노동자나 기층 주부들의 힘든 삶이 다 담겨야 할 리라 할 때, 가꾸어 나가야 할 미래를 형상화 하는 것 뿐 아니라 중산층 주부들이 갖고 있는 허위와식을 깨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않을까 해서다. 그들의 허영과 교만, 이기심, 사회의 현상유지에 대한 열망 등 '나'의 이익에 대한 어떤 손실도 거부하는 철저한 이기주의는 성숙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벗어나야 할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은 인간해방이다. 여성해방은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남성은 같은 인간으로서 동지일 뿐이다. 여성이 해방되어야 비로소 남성도 해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5회 '여성과 현실'전에 많은 남성작가들이 참여하는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

민혜숙 <미술평론가>

문화단신

한국 음악극 강좌

지난 89년 이후 활동의 정체를 맞은 '한국음악연구소'는 새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한국음악극을 보다 깊이있게 신중히 다뤄기로하고 첫 활동으로 일련의 강좌를 마련하였다.

이 강좌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국음악연구소 내 연습실(성북구 성북동)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 '노래부르기' 강좌와 '공연만들기' 강좌를 실시한다.

강사는 문호근(한국음악극연구소 대표), 강준일(작곡가), 이진용(서울대음대 교수), 정은숙(세종대음대 교수), 김준미(서울대음대 교수), 원창연(음대 교수) 등이 초빙되었다.

접수는 수강인원 30명으로 오는 31일까지이며 수강료는 한강좌당 일반 3만원, 학생 2만5천원이다.

<문의: 744-5783, 756-8266>

'탈' 마당극 공연

교내 마당극과 '탈'은 오는 31일과 1일 오후5시 구공대 돌

다방앞에서 제30회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운동권학생이 부도남들과의 갈등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같이 투쟁해나가는 모습을 그린 이번 공연은 89년 이후 교내 마당극으로는 처음으로 학생운동을 다룬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화내의 분열된 모습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탈 특유의 마당극을 통해 학생대중의 정서와 이해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미교과 '첫걸음전'

사범대 5층복도와 504강의실에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술교육과 91학번의 작품전 '첫걸음전'이 열렸다.

'첫걸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투르지만 개성있는 개인들의 작품세계를 펼쳐보였던 이번 작품전에서는 1학년 전원의 창작품이 전시됐으며 처음으로 91학번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치뤘던 점이 주목된다.

미술교육과에서는 이번 '첫걸음전'을 계기로 1학년 전시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앞으로 성원들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예상된다.

초기의 '동지' 해체, 노동미술로 전화돼 중산층 여성 포용하는 넓은 시야 가져야

의견도 있었고 서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의 자나란에 드러내며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여성해방을 부르는

은 취업난이 극심하다. 그런데 여자졸업생들의 취업은 그 극심함의 도를 지나쳤다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와같은 성모순에 계급모순까지 겹치면 그 모순을 떠안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다. 노동현장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이중의 짐은 한편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부르짖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성노동자들과 함께 노사갈등을 겪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성'과 '현실'전에 참여한 화가들은 대부분이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림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그림들은 자연히 여성노동자, 농촌여성 등 힘겨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다고 중산층 여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고 풍족한 중산층 여성들은 사회 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둔감하고 극심한 가족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내 남편, 내 자식에 관계되지 않는 문제라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일지라도 거기에 분노하거나 항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사적에서 나온 '진정으로 해방되

것이 프로퍼갠더라고 한다. 사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그림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우리가 성화라고 추상하고 있는 중세의 그림들은 이런 의미에서 철저한 프로퍼갠더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예술이론가의 말처럼 우리 결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예술가가 거기로부터 눈을 돌려 현실과 전혀 다른 것을 형상화하고 있을 경우, 그것은 그것은 불의가 지속되도록 돕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 또한 한 작가의 신념의 표출인 셈이다.

이같은 전시장에서의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시장에 걸렸던 그림들은 대학가의 축제 때에 축제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고 그 그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나섰다.

그림의 주제와 만나고 또 하나의 방법이 소위 갈래그림이다. 민족미술협회의 여성분과에서는 1987년부터 분과내에 '동지'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갈래그림 제작에 전념했다. 동지팀은 1987년 민주항쟁 때의 최후탄기부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여성운동도 일어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현장, 또는 공해추방 시민대회 같은 곳에 걸려그림을 그려 걸음으로써 전시장 미술이 해내지 못했던 대중들과의 만남을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었다. 후일 동지는

문화단평

교수·동문 주제로 내서는 문화행사

문화예술공간

더러는 낯설게까지 느껴지는 말이다. 교내의 크고작은 문화행사들이 다양하지 못한 내용과 기층시설의 미비로 인해 학생들의 소외를 받아왔고, 교외의 상인들을 댈 문화공간들은 건전한 대학문화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하여 학생들이 참다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와 관련 건립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첫째가 '식당'이고 그 다음이 '문화공간'이라는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교수와 동문선배에 의한 문화예술과의 만남의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관심을 끌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크라운관에서 '영화예술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문화예술강좌'를 열었다. 임권택감독의 초청강연 및 영화감상회로 진행된 이 행사는 영화평론가 김중환의 사회로 '장군의 아들'을 감상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예술영화와 상업영화, 임권택감독의 예술세계, 우리 영화의 나아갈 길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학생들은 대부

분 이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대해 만족하였고, 많은 수가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웠던 점은 영화선택에 있어서 좀더 작품성·내용성이 있는 영화를 선정하지 못한 것과 아직까지 예술감상의 기본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모습이었다. 이는 과연 대학문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바랄만한 문화공간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

미나를 열어 영화학과가 없는 본교의 영화관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하였다. 이 자리에서 '경희시네마'와 참찬한 학생들은 지속적인 영화감상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영화감상회'를 꾸리기로 맘을 모았다. 경희시네마는 이번 행사에 이어 12월 중순에 '칸트영화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정기영화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세계의 창조, 문화공간의 확보를 위

해서는 복지관이 나 장단기적인 문화시설확충도 절실하다. 지금의 열악한 문화공간이나마 충분히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예인들은 경직된 내용·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양식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하며,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편협한 인식과 무관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화내의 문화행사에 폭넓은 관심을 기울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같이 교수·선배·재학생을 잇는 뜻있는 문화행사들을 서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금주 記者>



한 여성

조직 창작

문제가 소수 전문가의 손에 쥐어 있을 때는 조직창작이 제기되지 않았다. 대중이 문제의 진정한 주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중을 문제의 창작자로 세우는 방법으로서 조직창작이 제기되었다. 대중의 조직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두가지 사실중 하나는 문제가 갖고 있는 대중을 자각하게 하고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을 통하여 전문적 지식의 한계, 기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는 대중이 조직창작을 통하여 만들어 낸 작품이 그 진실성이나 구체성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여기에 조직창작이 새로운 창작방법론으로 제기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조직적으로 창작한다는 것이 비단 대중 창작에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업적 창작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창작은 창작의 개인주의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문제물이 수없이 많이 필요한 현대에 있어서 조직창작

대중을 주제로 세우는 창작기법

임창기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협의회 정책실장>

Newsweek 한국판

수요일엔 언제나 세계가 달려옵니다

Newsweek
全世界 2,500萬 讀者가 읽는다.
다양한 情報을 提供한다.
뉴스위크는 政治·經濟에서 藝術·映畫까지 다양한 情報을 提供합니다.

Newsweek
다양한 情報을 提供한다.
뉴스위크는 政治·經濟에서 藝術·映畫까지 다양한 情報을 提供합니다.

Newsweek
眞實한을 전달하려는 강한 信念.
1933년 創刊 이래 뉴스위크는 세계 각지에서 강한 信賴를 받고 있습니다.

Newsweek
새로운 뉴스위크 誕生
1991년 10월 30일, 뉴스위크 한국판 誕生. 한국어로 꾸며진 완벽한 뉴스위크 出現

Newsweek
韓國 最初의 國際時事 情報誌
세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韓國 最初의 國際時事 情報誌. 세계속의 韓國을 理解하는 지름길입니다.

Newsweek
전 世界와 同時에 最新 뉴스들...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같은 記事를 같은 時間에 話題에 올립니다.

Newsweek
화려한 칼라 畫報로 세계를 見는다.
명쾌한 문장, 풍부한 칼라 사진 읽기 쉬운 편집. 뉴스위크 스타일의 정수입니다.

뉴스위크 한국판 마침내 10월 30일 창간

10월 30일 전국서점에서 만나주십시오
매주 수요일 발매
정가 2,000원

한국판 創刊의 蘇聯·東歐의 大變革과 冷戰의 終結을 契機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 目的 들은 政治, 그리고 직접 우리 生活에 影響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속의 韓國, 韓國속의 세계의 眞實한 모습입니다. 이제 韓國인은 世界의 情報을 언제나 함께 나누고 국제적 감각과 見識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國際情報을 제공하는 韓國 最初의 국제적 時事誌 이것이 뉴스위크 한국판 創刊의 目的입니다.

뉴스위크 한국판의 特色
1 人間이 관련된 모든 分野에 초점을 맞춘 뉴스매거진. 政治·經濟에서 科學·文化에 이르기까지 신선하고 다채로운 情報
2 세계적인 情報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인 見識. 이제 自國 中心의 見識으로는 세계를 볼 수 없다. '세계로 열린 窓' 뉴스위크로 일깨

되는 '세계속의 韓國'.
3 眞實한을 전달하려는 信念에서 우리나라의 客觀性, 信賴性, 中立性, 그리고 탄탄한 권위.
4 간결명료한 번역, 읽기 쉽고 보기 좋은 풍부한 사진, 편집의 巧 巧감.